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3호 2010년 9월 pp.37~67
한국세무학회

보고이익차이 정보가 감사수수료에 미치는 영향^{*,**}

노희천^{***} · 김경태^{****}

<요 약>

본 연구는 보고이익차이(book-tax difference)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이익차이의 정보가 감사수수료에 반영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이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의 질을 활용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회계이익의 질과 관련있는 변수들인 재량적 발생액과 보고이익차이를 동시에 반영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이 제공하지 못하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보고이익차이가 차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보고이익차이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보고이익차이가 증가할수록 외부감사인이 회계이익의 질을 낮게 판단하여 이후 추가노력 투입 및 위험부담 등의 이유로 감사수수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대형회계법인(BIG4)의 경우 중소회계법인(NON-BIG4)에 비하여 감사수수료와 보고이익차이 간의 더 큰 양(+)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대형회계법인(BIG4)이 보고이익차이의 정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발생액이 큰 경우 발생액이 작은 경우에 비하여 보고이익차이와 감사수수료 간의 양(+)의 관계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발생액에 담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에 추가적으로 유사한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보고이익차이)가 주어질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보고이익차이에 대한 반응정도가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 첫째,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가 자본시장의 정보중개인인 외부감사인이 감사수수료를 결정할 때 활용한 정보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량적 발생액과 보고이익차이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이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보고이익차이가 반영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셋째, 대형감사법인(BIG4)의 경우 보고이익차이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검증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보고이익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자본시장에 있어서 세무정보에 대한 공시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보고이익차이, 감사수수료, (재량적) 발생액, 회계이익의 질, 감사품질

* 논문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rhc0401@ssu.ac.kr, 011-9105-8827, 교신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ktkim@uos.ac.kr, 010-3511-3908, 제1저자

논문접수일 2008년 12월 1차수정일 2009년 6월 2차수정일 2010년 4월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I. 서 론

본 연구는 보고이익차이(book-tax difference)¹⁾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의 정보중개인(information intermediary) 가운데 하나인 외부감사인(auditor)이 보고이익차이에 담겨있는 회계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²⁾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지를 살펴본다. 즉 보고이익차이의 정보효과가 감사수수료에 반영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이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의 질을 반영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재량적) 발생액과 보고이익차이를 동시에 반영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이 제공하지 못하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보고이익차이가 반영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은 (재량적) 발생액이 회계이익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³⁾

최근 선행연구는 보고이익차이가 재무이익과 관련된 이익조정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hillips et al. 2003, 주인기 등 2005, 최종서와 문승엽 2005). 또한 보고이익차이가 재무이익의 지속성과 성장률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Lev and Nissim 2004, Hanlon 2005, 노회천 2007). 이러한 결과는 세무이익 산출과정에서 재무이익에 비하여 경영자의 재량권(discretion)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이익이 재무이익에 대한 비교지표(benchmark)로서 가치가 있으며 보고이익차이가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반영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보고이익차이가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음을 외부감사인이 인지한다면, 외부감사인은 감사수수료 결정 시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외부감사인은 회계이익의 질에 연관이 있는 보고이익차이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감사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회계이익의 질을 저하시키는 보고이익차이는 높은 위험(risk)을 의미하므로 외부감사인은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대가로 높은 감사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고이익차이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수수료와 보고이익차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실증적(empirical)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이익차이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 간

-
- 1) 재무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세무이익(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2)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개념에 여러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수준을 회계이익의 질로 간주한다.
 - 3) 대다수의 연구들은 재량적 발생액은 회계이익의 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Becker et al. 1998, Francis et al. 1999, Frankel et al. 2002, Myers et al. 2003). 그러나 또다른 연구들은 재량적 발생액이 기업의 미래 성과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Subramanyam, 1996 ; Krishnan, 2003).

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보고이익차이가 증가할수록 외부감사인이 회계이익의 질을 낮게 판단하여 감사수수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대형회계법인(BIG4)의 경우에는 중소회계법인(NON-BIG4)에 비하여 감사수수료와 보고이익차이 간의 더 큰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대형회계법인(BIG4)이 보고이익차이의 정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발생액이 큰 경우에는 발생액이 작은 경우에 비하여 보고이익차이와 감사수수료 간의 양(+)의 관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발생액과 보고이익차이가 독립적으로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만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 결정에 있어서는 두 정보 상호간에 대체적으로 반영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발생액이 큰 경우에는 발생액에 내포된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가 보고이익차이의 정보와 중복되므로 보고이익차이의 추가적인 정보효과가 하락하여 감사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에는 감사수수료와 무관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재량적 발생액이 이익조정 또는 회계이익의 질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사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기업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는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오차로 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고(윤순석 2004), 감사수수료 결정과 관련된 정보가 재량적 발생액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가 자본시장의 정보중개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수수료를 결정할 때 활용한 정보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면에서 공헌점이 있다. 절대값으로 측정한 보고이익차이가 감사수수료에 반영된다는 결과를 통하여 국내에서 보고이익차이의 전체적인 수준이 회계이익의 질을 반영하고 결과적으로 감사수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보고이익차이가 크다는 것은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크므로 외부감사인이 세무조정내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조정금액의 규모가 크면,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세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심태섭 2004).

또한, (재량적) 발생액과 보고이익차이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이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보고이익차이가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면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재량적) 발생액과 보고이익차이는 이익조정 행위 포착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Phillips et al. 2003, 주인기 등 2005, 최종서와 문승엽 2005). 이는 (재량적) 발생액에 반영된 정보와 보고이익차이에 반영된 정보가 모두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특성은 각각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보고이익차이에 반영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보고이익차이가 재량적 발생액에 대해서 대체적인 이익조정 측정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보고이익차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술하고 연구배경을 제시한 후에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연구모형에 사용되는 변수의 측정과 표본기업의 선정과정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Ⅳ장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공헌점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보고이익차이 분야의 연구와 발생액 등 회계이익 관련 정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반응에 관한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최근 여러 논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고이익차이에 관련된 연구 중에서 회계이익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이익차이가 이익조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연구주제가 있다. 세무이익은 경영자의 재량권이 반영될 여지가 적은 반면, 재무이익은 경영자의 재량권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보고이익차이의 증가는 경영자의 재량권이 반영되어 재무이익이 증가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Manzon and Plesko 2002, Plesko 2004, Palepu et al. 2004, Penman 2007). 이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이익조정이 증가할수록 보고이익차이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Mills and Newberry, 2001, Phillips et al 2003, Phillips et al. 2004, 박종일과 김경호 2002, 전규안과 박종일 2002, 주인기 등 2005, 최종서와 문승엽 2005, 고종권과 윤성수 2006b).

둘째, 보고이익차이가 이익지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분야가 있다. 경영자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면 당기의 재무이익이 증가하지만 미래시점에 일시적 차이가 반전될 것이므로 미래의 재무이익은 감소할 것이므로 당기 재무이익의 이익지속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때, 일시적 차이를 통한 이익조정은 보고이익차이를 증가시키므로 보고이익차이가 크면 당기 재무이익의 이익지속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Lev and Nissim 2004, Hanlon 2005, 고종권과 윤성수 2006a).

다음으로 외부감사인이 재무이익의 발생액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⁴⁾ 첫째, Bardshaw et al.(2001)은 발생액이 클수록 감사의견의 변경이나 감사인변경이

4) 많은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회계이익 정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반응과는 달리, 감사수수료 등 외부감사인의 특성이 회계이익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어왔다(Becker et al. 1998,

더 자주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Bardshaw et al.(2001)은 발생액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정의견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발생액에 담긴 정보를 외부감사인들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발생액 수준이 높을수록 감사인변경이 감소하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감사의견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외부감사인은 발생액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Hanlon and Krishnan(2005)은 외부감사인이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감사수수료, 감사의견 및 감사인변경에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고이익차이와 감사수수료, 감사의견 및 감사인변경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보고이익차이에 반영된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감사할 때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정보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에 대해 추가적인 실증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은 회계이익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보고이익차이가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고이익차이에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가 반영된다고 볼 때, 보고이익차이가 증가할수록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가 증가한다면 외부감사인이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여 감사수수료에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보고이익차이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보고이익차이와 관련된 연구에 기여하고 감사실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가설도출

보고이익차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반응을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하여 감사기준(auditing standards)은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상황, 시기 및 감사절차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AS No. 47, AICPA 1983 ; SAS No. 82, AICPA 1997). 선행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이러한 위험에 반응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외부감사인은 이익조정 위험을 고려하여 감사수준과 감사수수료를 결정한다(Bedard and Johnstone 2004). 또한 이익조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강도 높은 조사 및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Johnstone and Bedard 2001). 경영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기업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 대가로 추가적인 감사수수

Francis et al. 1999, Myers et al. 2003). 물론 감사인의 규모나 감사기간, 감사수수료 등 외부감사인의 특성이 회계이익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보고이익차이, 발생액 등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가 외부감사인이 반응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으므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외부감사인의 특성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의 질과 관련된 독립변수들(보고이익차이, (재량적)발생액)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 변수보다 한 기전의 값을 취하였다.

료를 받을 수 있다(Bell et al. 2001).

외부감사인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중에서 피감사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감사기업의 내부정보에 가장 접근하기 쉽고, 전문적인 능력도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자들은 보고이익차이에 내포된 회계이익의 질을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Lev and Nissim 2004). 또한, 재무분석가는 보고이익차이 정보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예측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Weber 2005, 전규안 등 2007).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비해 외부감사인은 그 업무에 있어 피감사기업의 보고이익차이 정보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고이익차이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의사결정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외부감사인이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다면, 외부감사인들은 이러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⁶⁾ 보고이익차이가 크다는 것은 과거의 이익조정이 반전되어 나타나거나 당기의 이익조정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정의 복잡성을 반영한 결과일수도 있다. 외부감사인에게는 피감사기업의 보고이익차이가 크다면, 보고이익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중한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익조정의 결과⁷⁾라면 이익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세무조정의 복잡성의 결과라면 세법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⁸⁾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감사업무가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큰 보고이익차이는 회계이익의 질이 낮다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회계법인은 작은 보고이익차이를 보이는 기업보다 큰 보고이익차이 기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사시간이나 전문가를 투입하고 감사수수료를 증가시킬 것이다.⁹⁾ 본 연구에서는 보고이익차이의 방향성보다는 크기에 초점을 두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측정치로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고이익차이 중에서 반전효과가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가 회계이익의 질과 관련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¹⁰⁾ 영구적 차이도 크면 클수록 기업의 복잡성이 증

5) 주인기 등(2005)에서는 보고이익차이가 재량적 발생액에 비해 고정자산·개발비를 부풀리거나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추가적인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피감사법인과 감사인 간의 계약은 복수기간(년도)동안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감사계약 기간 중 최소한 2차년도부터는 감사인이 전년도 대상의 결산 및 세무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고이익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

7) Palepu et al.(2004, 3-10쪽), Penman(2007, 652쪽)

8) 심태섭(2004)

9) Hanlon and Krishnan(2005)은 감사절차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10) 아직까지 보고이익차이에 대한 변동성 또는 반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흡한 면이 없지 않지만, Hanlon(2005), 고종권과 윤성수(2006a) 등의 선행연구에서 보고이익차이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고이익차이를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가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감사수수료 결정에 있어서는 보고이익차이의 방향성보다는 크기가 더 관련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¹⁾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와 보고이익차이의 절대값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외부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보고이익차이에 반영된 회계이익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감사업무에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대형회계법인(*BIG4*)과 중소회계법인(*NON-BIG4*)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회계법인은 중소회계법인에 비하여 외부의 평판과 법적인 부담에 대해 더 민감하고 따라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DeAngelo, 1981). 대형회계법인은 회계이익의 인식에 있어서 중소회계법인보다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Francis and Krishnan, 1999, Khurana and Raman, 2004). 또한 이러한 대형회계법인의 행태에 따라 중소회계법인보다 높은 감사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Whisenant, Sankaraguruswamy, and Raghundan 200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형회계법인이 중소회계법인에 비해 보고이익차이에 내포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사업무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노력에 따라 감사수수료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가적으로 설정한다.

[가설2]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형회계법인(*BIG4*)에서 중소회계법인(*NON-BIG4*)에 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와 보고이익차이 절대값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더 크다.

이에 추가하여, 감사수수료 결정시 (재량적) 발생액과 보고이익차이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존재한다.¹²⁾ 보고이익차이는 (재량적) 발생액이 제공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Phillips et al. 2003, 주인기 등 2005, 최종서와 문승엽 2005). 이는 (재량적) 발생액과 보고이익차이가 서로 다른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외부감사인이 감사수수료 결정에서 (재량적) 발생액과 보고이익차이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보고이익차이는 (재량적) 발생액에 대하여 보완적이거나 대체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 피감사기업의 보고이익차이가 크고, (재량적) 발생액도 큰 경우에, 외부감사인이 높은 (재량적) 발생액을 보고이익차이에 대한 검증으로 판단하여 감사수수료를 증가시킨다면, 보고이익차이는

11) 영구적 차이는 회계이익의 질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종권과 윤성수 2006b).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한계로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12) Hanlon and Krishnan(2005)은 보고이익차이가 가지는 회계이익의 질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회계이익의 질을 측정하는 또 다른 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은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의 질을 측정하는 또 다른 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을 통제한 이후 보고이익차이의 증분적인 정보효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비교 시에 차별성을 가진다.

(재량적) 발생액에 대하여 보완적 효과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앞의 경우에서 감사수수료를 감소시킨다면 이미 높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하여 보고이익차이의 정보와 유사한 회계이익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대체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양 방향이 모두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3]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보고이익차이와 감사수수료 간의 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의 가설 3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인 감사수수료를 결정할 때, (재량적) 발생액에 내포된 정보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이 회계이익의 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ecker et al. 1998, Francis et al. 1999, Frankel et al. 2002, Myers et al. 2003). 만약 외부감사인인 피감사기업의 높은 (재량적) 발생액을 낮은 회계이익의 질로 인지하여 감사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다면, (재량적) 발생액과 감사수수료 간에는 양(+)의 관계가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1]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와 (재량적) 발생액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III. 연구모형 설계

1. 연구모형

가설1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imunic(1980), Larcker and Richardson(2004), Kim et al. (2007)에 바탕을 두고 보고이익차이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만약 보고이익차이에 대한 설명계수(β_1)가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인다면, 보고이익차이에 내포된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에 반영되어 감사수수료가 증가한다는 가설1을 지지하게 된다.

$$\begin{aligned}
 Ln(AUDIT\ FEE)_t = & \beta_0 + \beta_1 Ln(ABS\ BTD)_{t-1} + \beta_2 BIGA_t + \beta_3 TAC_{t-1} \\
 & + \beta_4 Ln(NONAUDIT\ FEE)_t + \beta_5 FIRST_t + \beta_6 TENURE_t + \beta_7 OPINION_t \\
 & + \beta_8 RESTATE_t + \beta_9 LN(ASSET)_t + \beta_{10} SQSEGS_t + \beta_{11} SQEMPS_t \\
 & + \beta_{12} EXTRA_t + \beta_{13} EXPORT_t + \beta_{14} INVREC_t + \beta_{15} LIQUIDITY_t \\
 & + \beta_{16} ROA_t + \beta_{17} LOSS_t + \beta_{18} GROWTH_t + \beta_{19} NEWFIN_t + \beta_{20} DEBT_t \\
 & + \beta_{21} INSTITUTION_t + \beta_{22} BIGGEST_t + \beta_{23} BETA_t + \beta_{24} VOLATILITY_t \\
 & + \beta_{25} ALTMANZ_t + \beta_j IND_j + \beta_k YD_k + e_t
 \end{aligned} \quad (1)$$

모형에서 설정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Ln(AUDIT\ FEE)_t$ = 감사수수료의 자연로그값(전자공시시스템)
- $Ln(ABS\ BTD)_{t-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kis-value item # 128000)에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사업보고서의 법인세등명세서)을 차감한 금액의 자연로그값
- $BIG4_t$ = 피감사기업의 회계법인이 대형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TAC_{t-1} = (t-1)기의 당기순이익(#129000)에서 (t-1)기의 영업현금흐름(#161000)을 차감한 금액
- $Ln(NONAUDIT\ FEE)_t$ = 비감사 서비스 수수료의 자연로그값
- $FIRST_t$ = 초도감사 또는 2년차 감사이면 1, 3년차 감사 이상이면 0인 더미변수
- $TENURE_t$ = 감사업무 수행 연도
- $OPINION_t$ = 당기와 전기에 걸쳐 감사의견(#600101)이 적정이면 0, 아니면 1인 더미변수
- $RESTATE_t$ = 전기오류수정손익(#127136 또는 #127252)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Ln(ASSET)_t$ = 자산총계(#115000)의 자연로그값
- $SQSEGS_t$ = 피감사기업의 사업부문 개수에 제공근을 취한 값(한국상장회사협의회)
- $SQEMPS_t$ = 임직원 수(#105000, 단위 : 천명)에 제공근을 취한 값
- $EXTRA_t$ = 특별손익(#127100 또는 #127200)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EXPORT_t$ = 수출액(#502001)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INVREC_t$ = 채고자산(#111400)과 매출채권(#111150)의 합 / 자산총계
- $LIQUIDITY_t$ = 유동자산(#112000) / 유동부채(#116000)
- ROA_t = 영업이익(#125000) / 자산총계
- $LOSS_t$ = 직전 2년의 당기순이익 중 음(-)인 경우가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GROWTH_t$ = 전기 대비 매출액(#121100) 성장률
- $NEWFIN_t$ = 유상증자(#163171) 또는 장기차입금(#163141-163144)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DEBT_t$ = 부채총계(#118000) / 자산총계
- $INSTITUTION_t$ = 기관투자자 지분율(#500303-500305)
- $BIGGEST_t$ = 대주주 지분율(#500404)
- $BETA_t$ = 60개월 월별수익률을 이용한 체계적 위험
- $VOLATILITY_t$ = 시장모형의 잔차의 변동성
- $ALTMANZ_t$ = Altman(1968)의 도산예측 점수
- IND_t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의한 더미변수

통제변수와 관련, 외부감사인의 특성이 감사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외부감사인과 피감사기업의 관계, 외부감사인 독립성 등에 대한 통제변수를 설정한다.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형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감사 수행 능력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형회계법인($BIG4$)으로 설정한다. 감사수행기간이 늘어나거나 새로이 감사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외부감사인과 피감사기업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사업무수행기간 정도($FIRST$, $TENURE$)에 대한 변수를 설정한다. 감사의견($OPINION$)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는 정도(*RESTATE*)는 본 항목으로 인해 감사인의 추가 업무 수행이 요구될 시에 감사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회계이익의 질 관련 변수로서 이익조정을 나타내는 발생액과 감사수수료 간의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총발생액(*TAC*)과 재량적발생액(*DAC*)을 설정한다.

Simunic(1980)은 대형회계법인의 감사인과 회계법인 대상 전문보험의 전문가들과 토론하여 감사수수료에 대한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들은 피감사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① 피감사기업의 크기, ② 피감사기업의 복잡성, ③ 채고자산과 매출채권 등과 관련된 사항, ④ 피감사기업의 업종, ⑤ 피감사기업의 상장유무 등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감사기업의 크기에 대한 대용치로 자산총계($Ln(ASSET)$), 사업부문 개수($SQSEGS$), 임직원 수($SQEMPS$) 등을 설정한다. 피감사기업의 복잡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용치로 특별손익(*EXTRA*), 수출여부 (*EXPORT*)를 통제한다. 채고자산과 매출채권과 관련된 감사업무의 어려움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산총계 대비 채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합(*INVREC*)을 설정한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유동비율(*LIQUIDITY*), 영업이익률(*ROA*), 직전 2년간 손실여부(*LOSS*), 매출액성장률(*GROWTH*), 신규자본조달(*NEWFIN*), 부채비율(*DEBT*) 등을 설정한다. 피감사기업의 지배구조가 감사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지분율(*INSTITUTION*), 최대주주지분율(*BIGGEST*) 등을 설정한다. 그리고, 피감사기업의 재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장위험(*BETA*), 변동성(*VOLATILITY*), 도산예측 점수(*ALTMANZ*) 등을 설정한다.

피감사기업의 업종을 고려하기 위하여 피감사기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two digit SIC code)를 기준(*IND*)으로 하여 통제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표본은 모두 유가증권시장기업이므로 피감사기업의 상장유무는 본 연구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통제변수를 설정하지 않는다.

가설2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식(1)에 보고이익차이 변수($Ln(ABS\ BTD)_{t-1}$)와 대형회계법인 변수($BIG4_t$)의 교차변수($Ln(ABS\ BTD)_{t-1} \times BIG4_t$)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Ln(AUDIT\ FEE)_t = & \beta_0 + \beta_1 Ln(ABS\ BTD)_{t-1} + \beta_2 Ln(ABS\ BTD)_{t-1} \times BIG4_t + \beta_3 BIG4_t \\
 & + \beta_4 TAC_{t-1} + \beta_5 Ln(NONAUDIT\ FEE)_t + \beta_6 FIRST_t + \beta_7 TENURE_t \\
 & + \beta_8 OPINION_t + \beta_9 RESTATE_t + \beta_{10} Ln(ASSET)_t + \beta_{11} SQSEGS_t \\
 & + \beta_{12} SQEMPS_t + \beta_{13} EXTRA_t + \beta_{14} EXPORT_t + \beta_{15} INVREC_t + \beta_{16} LIQUIDITY_t \\
 & + \beta_{17} ROA_t + \beta_{18} LOSS_t + \beta_{19} GROWTH_t + \beta_{20} NEWFIN_t + \beta_{21} DEBT_t \\
 & + \beta_{22} INSTITUTION_t + \beta_{23} BIGGEST_t + \beta_{24} BETA_t + \beta_{25} VOLATILITY_t \\
 & + \beta_{26} ALTMANZ_t + \beta_j IND_j + \beta_k YD_k + e_t
 \end{aligned} \quad (2)$$

가설3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식(1)에 보고이익차이 변수($\ln(ABS\ BTD)_{t-1}$)와 발생액(TAC_{t-1})의 교차변수($\ln(ABS\ BTD)_{t-1} \times TAC_{t-1}$)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ln(AUDIT\ FEE)_t = & \beta_0 + \beta_1 \ln(ABS\ BTD)_{t-1} + \beta_2 \ln(ABS\ BTD)_{t-1} \times TAC_{t-1} + \beta_3 BIG4_t \\ & + \beta_4 TAC_{t-1} + \beta_5 \ln(NONAUDIT\ FEE)_t + \beta_6 FIRST_t + \beta_7 TENURE_t \\ & + \beta_8 OPINION_t + \beta_9 RESTATE_t + \beta_{10} \ln(ASSET)_t + \beta_{11} SQSEGS_t \\ & + \beta_{12} SQEMPS_t + \beta_{13} EXTRA_t + \beta_{14} EXPORT_t + \beta_{15} INVREC_t + \beta_{16} LIQUIDITY_t \\ & + \beta_{17} ROA_t + \beta_{18} LOSS_t + \beta_{19} GROWTH_t + \beta_{20} NEWFIN_t + \beta_{21} DEBT_t \\ & + \beta_{22} INSTITUTION_t + \beta_{23} BIGGEST_t + \beta_{24} BETA_t + \beta_{25} VOLATILITY_t \\ & + \beta_{26} ALTMANZ_t + \beta_j IND_j + \beta_k YD_k + e_t \end{aligned} \quad (3)$$

발생액(TAC_{t-1})을 대신하여 재량적 발생액(DAC_{t-1})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분석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AUDIT\ FEE)_t = & \beta_0 + \beta_1 \ln(ABS\ BTD)_{t-1} + \beta_2 \ln(ABS\ BTD)_{t-1} \times DAC_{t-1} + \beta_3 BIG4_t \\ & + \beta_4 DAC_{t-1} + \beta_5 \ln(NONAUDIT\ FEE)_t + \beta_6 FIRST_t + \beta_7 TENURE_t \\ & + \beta_8 OPINION_t + \beta_9 RESTATE_t + \beta_{10} \ln(ASSET)_t + \beta_{11} SQSEGS_t \\ & + \beta_{12} SQEMPS_t + \beta_{13} EXTRA_t + \beta_{14} EXPORT_t + \beta_{15} INVREC_t + \beta_{16} LIQUIDITY_t \\ & + \beta_{17} ROA_t + \beta_{18} LOSS_t + \beta_{19} GROWTH_t + \beta_{20} NEWFIN_t + \beta_{21} DEBT_t \\ & + \beta_{22} INSTITUTION_t + \beta_{23} BIGGEST_t + \beta_{24} BETA_t + \beta_{25} VOLATILITY_t \\ & + \beta_{26} ALTMANZ_t + \beta_j IND_j + \beta_k YD_k + e_t \end{aligned} \quad (4)$$

이때, DAC_{t-1} 는 수정존스 모형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을 의미한다.

2.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 (1)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2) 12월 결산법인
- (3) 사업보고서의 법인세등명세서에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수집할 수 있는 기업
- (4)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 II에서 필요한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 (5)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감사수수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

본 연구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2000년에서 2002년까지의 총 표본 수는 1,545개 (연도/기업)이다.¹³⁾ 이 가운데, 위 ‘(1)’에서 ‘(5)’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표본과, 실증모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변수 중 결측치가 있는 표본을 제외한 총 표본 수는 1,143(연도/기업) 개로 나타났다.

IV. 실증결과

1. 기초통계량

<표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비용차감 전순이익에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보고이익차이(BTD)는 평균이 -2,643,738 (천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평균적으로는 음의 보고이익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발생액(TAC)은 음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지만 재량적 발생액(DAC)은 양의 평균값과 중간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이 재량적으로 이익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익을 줄이는 조정보다는 이익을 늘이는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 기업 중 70%의 기업들이 대형회계법인(BIG4)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우선, 외부감사인인 감사수수료와 보고이익차이의 절대값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큰 보고이익차이가 회계이익의 질이 낮다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나 또는 감사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감사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인의 규모와 감사수수료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큰 규모의 외부감사인이 그렇지 않은 외부감사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수수료는 피감사기업의 발생액 및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보고이익의 차이 역시 피감사기업의 발생액 및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13)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세등명세서는 상장된 기업이 동일한 형식에 맞춰 법인세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료 이용에 있어서 연구자의 임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반면 1999년부터 도입되어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 보고되는 법인세비용 사항은 기업 간에 형식적인 차이가 다소 존재하고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료수집과정에서의 측정오류 방지 및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세등명세서를 이용할 수 있는 상기 기간을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표 1> 기술통계량

변수(N=1,143)	평균값	표준편차	중간값	제10 백분위수	제90 백분위수
$\ln(AUDIT\ FEE)$	11.00	0.65	10.85	10.34	11.87
BTD_{t-1} (단위 : 백만원)	-2,644	115,805	-1,273	-27,494	9,349
$\ln(ABS\ BTD)_{t-1}$	22.05	1.95	21.96	19.74	24.70
$BIG4$	0.70	0.46	1.00	0.00	1.00
TAC	-0.04	0.09	-0.04	-0.15	0.06
DAC	0.01	0.07	0.00	-0.08	0.09
$\ln(NON\ AUDIT\ FEE)$	3.27	4.76	0.00	0.00	10.69
$FIRST$	0.32	0.47	0.00	0.00	1.00
$TENURE$	4.65	3.97	3.00	1.00	9.00
$OPINION$	0.03	0.17	0.00	0.00	0.00
$RESTATE$	0.00	0.03	0.00	0.00	0.00
$\ln(ASSET)$	24.50	1.55	24.25	22.84	26.55
$SQSEGS$	1.95	0.34	2.00	1.41	2.24
$SQEMPS$	29.25	26.31	21.98	12.08	54.69
$EXTRA$	0.20	0.40	0.00	0.00	1.00
$EXPORT$	0.81	0.39	1.00	0.00	1.00
$INVREC$	0.27	0.14	0.25	0.11	0.46
$LIQUIDITY$	1.52	1.13	1.23	0.60	2.71
ROA	0.02	0.08	0.02	-0.07	0.10
$LOSS$	0.33	0.47	0.00	0.00	1.00
$GROWTH$	0.07	0.22	0.06	-0.15	0.30
$NEWFIN$	0.41	0.49	0.00	0.00	1.00
$DEBT$	0.54	0.22	0.53	0.26	0.79
$INSTITUTION$	7.50	11.78	3.00	0.00	21.00
$BIGGEST$	29.80	18.88	28.00	6.00	55.00
$BETA$	0.84	0.33	0.83	0.44	1.25
$VOLATILITY$	0.06	0.17	0.04	0.02	0.10
$ALTMANZ$	0.92	0.43	0.84	0.48	1.43

$\ln(AUDIT\ FEE)$ = 감사수수료의 자연로그값

BTD_{t-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kis-value item # 128000)에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사업보고서의 법인세등명세서)을 차감한 금액

$\ln(ABS\ BTD)_{t-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kis-value item # 128000)에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사업보고서의 법인세등명세서)을 차감한 금액의 자연로그값

$BIG4$ = 피감사기업의 회계법인이 대형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TAC = (t-1)$ 기의 당기순이익(#129000)에서 $(t-1)$ 기의 영업현금흐름(#161000)을 차감한 금액
 $DAC =$ 수정존스 모형에 의한 $(t-1)$ 기의 재량적 발생액
 $\ln(NON\ AUDIT\ FEE) =$ 비감사 서비스 수수료의 자연로그값
 $FIRST =$ 초도감사 또는 2년차 감사이면 1, 3년차 감사 이상이면 0인 더미변수
 $TENURE =$ 감사업무 수행 연도
 $OPINION =$ 당기와 전기에 걸쳐 감사의견(#600101)이 적정이면 0, 아니면 1인 더미변수
 $RESTATE =$ 전기오류수정손익(#127136 또는 #127252)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ln(ASSET) =$ 자산총계(#115000)의 자연로그값
 $SQSEGS =$ 피감사기업의 사업부문 개수에 제공근을 취한 값(한국상장회사협의회)
 $SQEMPS =$ 임직원 수(#105000, 단위 : 천명)에 제공근을 취한 값
 $EXTRA =$ 특별손익(#127100 또는 #127200)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EXPORT =$ 수출액(#502001)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INVREC =$ 채고자산(#111400)과 매출채권(#111150)의 합 / 자산총계
 $LIQUIDITY =$ 유동자산(#112000) / 유동부채(#116000)
 $ROA =$ 영업이익(#125000) / 자산총계
 $LOSS =$ 직전 2년의 당기순이익 중 음(-)인 경우가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GROWTH =$ 전기 대비 매출액(#121100) 성장률
 $NEWFIN =$ 유상증자(#163171) 또는 장기차입금(#163141-163144)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DEBT =$ 부채총계(#118000) / 자산총계
 $INSTITUTION =$ 기관투자자 지분율(#500303-500305)
 $BIGGEST =$ 최대주주 지분율(#500404)
 $BETA =$ 60개월 월별수익률을 이용한 체계적 위험
 $VOLATILITY =$ 시장모형의 잔차의 변동성
 $ALTMANZ =$ Altman(1968)의 도산예측 점수

감사수수료가 피감사기업의 발생액 및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발생액 및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클수록 감사수수료가 작아진다는 것으로서 높은 (재량적) 발생액이 기업의 높은 이익조정 수준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감사수수료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수수료와 기타 통제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전기오류수정손익(RESTATE), 수출여부(EXPORT), 성장률(GROWTH), 최대주주지분율(BIGGEST)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각 변수 간의 단순상관관계 결과이므로, 타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 감사수수료와 보고이익차이 등 관련된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표 2〉 상관관계

변 수	Ln(AUDIT FEE)	Ln(ABS BTD) _{t-1}	BIG4	TAC	DAC	Ln(NONAUDIT FEE)	FIRST	TENURE	OPINION	RESTATE	Ln(ASSET)	SQSEGS	SQEMPS
Ln(AUDIT FEE)		0.668 ^{***}	0.291 ^{***}	-0.171 ^{***}	-0.120 ^{***}	0.450 ^{***}	-0.074 ^{***}	0.278 ^{***}	-0.057 [*]	0.003	0.774 ^{***}	0.095 ^{***}	0.762 ^{***}
Ln(ABS BTD) _{t-1}	0.604 ^{***}		0.248 ^{***}	-0.202 ^{***}	-0.111 ^{***}	0.339 ^{***}	0.014	0.137 ^{***}	0.032	0.008	0.522 ^{***}	0.017	0.531 ^{***}
BIG4	0.294 ^{***}	0.256 ^{***}		-0.096 ^{***}	-0.091 ^{***}	0.142 ^{***}	0.002	0.076 ^{***}	0.041	0.019	0.218 ^{***}	0.023	0.198 ^{***}
TAC	-0.166 ^{***}	-0.215 ^{***}	-0.082 ^{***}		0.725 ^{***}	-0.047	-0.020	-0.065 ^{***}	-0.128 ^{***}	-0.007	-0.111 ^{***}	-0.002	-0.177 ^{***}
DAC	-0.105 ^{***}	-0.103 ^{***}	-0.072 ^{***}	0.739 ^{***}		-0.042	-0.001	-0.114 ^{***}	0.001	-0.017	-0.140 ^{***}	-0.049 [*]	-0.160 ^{***}
Ln(NONAUDIT FEE)	0.389 ^{***}	0.305 ^{***}	0.146 ^{***}	-0.053 [*]	-0.030		-0.116 ^{***}	0.239 ^{***}	0.046	0.023	0.373 ^{***}	0.068 ^{***}	0.385 ^{***}
FIRST	-0.070 ^{***}	0.018	0.002	-0.019	-0.004	-0.117 ^{***}		-0.540 ^{***}	0.110 ^{***}	0.042	-0.111 ^{***}	-0.015	-0.037
TENURE	0.147 ^{***}	0.040	0.033	-0.033	-0.063 ^{***}	0.169 ^{***}	-0.818 ^{***}		-0.085 ^{***}	-0.019	0.280 ^{***}	0.081 ^{***}	0.197 ^{***}
OPINION	-0.066 ^{***}	0.032	0.041	-0.105 ^{***}	0.006	-0.043	0.110 ^{***}	-0.106 ^{***}		-0.005	-0.153 ^{***}	-0.026	-0.069 ^{***}
RESTATE	0.013	0.015	0.019	-0.013	-0.026	0.021	0.042	-0.027	-0.005		-0.013	0.025	-0.002
Ln(ASSET)	0.677 ^{***}	0.454 ^{***}	0.217 ^{***}	-0.097 ^{***}	-0.118 ^{***}	0.317 ^{***}	-0.102	0.185 ^{***}	-0.176 ^{***}	-0.018		0.044	0.726 ^{***}
SQSEGS	0.138 ^{***}	0.038	0.020	0.003	-0.025	0.087 ^{***}	-0.025	0.056 [*]	-0.033	0.030	0.110 ^{***}		0.076 ^{***}
SQEMPS	0.694 ^{***}	0.507 ^{***}	0.215 ^{***}	-0.185 ^{***}	-0.163 ^{***}	0.321 ^{***}	-0.028	0.096 ^{***}	-0.119 ^{***}	0.013	0.646 ^{***}	0.157 ^{***}	
EXTRA	0.059 ^{***}	0.164 ^{***}	-0.018	-0.078 ^{***}	-0.017	0.070 ^{***}	0.120 ^{***}	-0.096 ^{***}	0.075 ^{***}	0.060 ^{***}	-0.080 ^{***}	0.017	0.091 ^{***}
EXPORT	0.031	0.013	-0.021	0.054 [*]	0.034	-0.023	-0.017	0.038	-0.041	0.014	0.069 ^{***}	0.086 ^{***}	0.073 ^{***}
INVREC	-0.329 ^{***}	-0.287 ^{***}	-0.143 ^{***}	0.163 ^{***}	0.03	-0.132 ^{***}	-0.039	-0.016	-0.035	0.012	-0.271 ^{***}	0.071 ^{***}	-0.244 ^{***}
LIQUIDITY	-0.314 ^{***}	-0.208 ^{***}	-0.138 ^{***}	0.161 ^{***}	-0.041	-0.119 ^{***}	0.025	-0.039	-0.077 ^{***}	-0.000	-0.109 ^{***}	0.009	-0.2549 ^{***}
ROA	-0.050 [*]	-0.115 ^{***}	-0.024	0.002	-0.162 ^{***}	-0.060 ^{***}	-0.007	0.013	-0.187 ^{***}	-0.026	0.280 ^{***}	0.045	0.047
LOSS	-0.085 ^{***}	0.167 ^{***}	-0.013	-0.164 ^{***}	0.117 ^{***}	-0.002	0.092	-0.093 ^{***}	0.214 ^{***}	-0.020	-0.298 ^{***}	-0.093 ^{***}	-0.121 ^{***}
GROWTH	-0.019	-0.063 ^{***}	-0.025	0.037	0.009	0.009	0.030	-0.015	-0.091 ^{***}	-0.037	0.145 ^{***}	0.062 ^{***}	0.092 ^{***}
NEWFIN	0.392 ^{***}	0.269 ^{***}	0.093 ^{***}	-0.022	0.047	0.198 ^{***}	-0.016	0.057 ^{***}	-0.049 [*]	0.035	0.315 ^{***}	0.075 ^{***}	0.296 ^{***}
DEBT	0.194 ^{***}	0.305 ^{***}	0.089 ^{***}	-0.120 ^{***}	0.069 ^{***}	0.104 ^{***}	0.065 ^{***}	-0.072 ^{***}	0.134 ^{***}	0.017	-0.189 ^{***}	0.003	0.167 ^{***}
INSTITUTION	0.363 ^{***}	0.223 ^{***}	0.054 [*]	-0.064 ^{***}	-0.089 ^{***}	0.108 ^{***}	0.001	0.063 ^{***}	-0.067 ^{***}	-0.012	0.377 ^{***}	0.042	0.309 ^{***}
BIGGEST	-0.036	-0.103 ^{***}	0.047	0.028	0.013	-0.106 ^{***}	0.034	-0.074 ^{***}	-0.072 ^{***}	-0.002	0.008	-0.0903 ^{***}	-0.002
BETA	0.328 ^{***}	0.273 ^{***}	0.130 ^{***}	-0.170 ^{***}	-0.053 [*]	0.195 ^{***}	0.016	0.052 [*]	-0.004	0.018	0.233 ^{***}	0.092 ^{***}	0.272 ^{***}
VOLATILITY	-0.277 ^{***}	-0.053 [*]	-0.058	0.00	0.086 ^{***}	-0.082 ^{***}	0.126 ^{***}	-0.137 ^{***}	0.141 ^{***}	0.013	-0.414 ^{***}	-0.076 ^{***}	-0.308 ^{***}
ALTMANZ	-0.111 ^{***}	-0.157 ^{***}	-0.012	0.010	-0.099 ^{***}	-0.2 [*]	-0.088 ^{***}	0.038	-0.075 ^{***}	-0.022	-0.017	0.038	-0.068 ^{***}

〈표 2〉 상관관계 (계속)

변 수	EXTRA	EXPORT	INVREC	LIQUIDITY	ROA	LOSS	GROWTH	NEWFIN	DEBT	INSTITUTION	BIGGEST	BETA	VOLATILITY	ALTMANZ
$Ln(AUDIT\ FEE)$	0.058**	0.044	-0.330***	-0.276**	0.007	-0.061**	-0.015	0.398***	0.118***	0.234***	-0.084***	0.333***	-0.091***	-0.037
$Ln(ABS\ BTD)_{t-1}$	0.161***	0.012	-0.286***	-0.128***	-0.069**	0.161***	-0.078***	0.276***	0.266***	0.222***	-0.08***	0.276***	0.012	-0.087**
BIG4	-0.018	-0.021	-0.134***	-0.101***	-0.026	-0.013	-0.051*	0.093***	0.087***	0.053*	0.058**	0.140***	0.013	0.026
TAC	-0.077***	0.058**	0.181***	0.130***	0.050*	-0.174***	0.063**	-0.015	-0.148***	-0.063**	0.037	-0.162***	-0.005	0.037
DAC	-0.008	0.034	0.065**	-0.017	-0.161***	0.113***	0.044	0.052*	0.061**	-0.037	0.013	-0.047	0.007	-0.068**
$Ln(NONAUDIT\ FEE)$	0.072**	-0.022	-0.129***	-0.091***	-0.028	-0.003	0.004	0.191***	0.065**	0.090***	-0.100***	0.188***	-0.031	-0.024
FIRST	0.120***	-0.017	-0.035	0.077***	-0.013	0.092***	0.053*	-0.016	0.088***	0.050*	0.039	0.014	0.119***	-0.077***
TENURE	-0.046	0.053***	-0.038	-0.054*	0.050*	-0.080***	-0.028	0.092***	-0.074**	0.039	-0.102***	0.135***	-0.082***	0.003
OPINION	0.075**	-0.041	-0.030	-0.001	-0.256***	0.21***	-0.110***	-0.049*	0.224***	-0.008	-0.071**	0.005	0.089***	-0.041
RESTATE	0.060**	0.014	0.006	-0.007	-0.006	-0.020	-0.024	0.035	0.011	-0.016	-0.004	0.014	-0.002	-0.017
$Ln(ASSET)$	-0.065**	0.053*	-0.284***	-0.128***	0.243***	-0.272***	0.099***	0.333***	-0.218***	0.209***	-0.027	0.260***	-0.148***	-0.003
SQSEGS	0.028	0.075**	0.077***	0.014	0.047	-0.097***	0.066**	0.064**	0.004	0.053*	-0.114***	0.082***	-0.058**	0.029
SQEMPS	0.053*	0.027	-0.273***	-0.202***	0.091***	-0.08***	0.059**	0.265***	0.046	0.152***	-0.076***	0.251***	-0.107***	-0.049*
EXTRA		-0.024	-0.028	0.048*	-0.063**	0.179***	-0.009	0.035	0.245***	0.151***	-0.104***	0.046	0.143***	-0.065**
EXPORT	-0.024		0.084***	0.042	0.002	-0.001	0.014	0.029	-0.098***	0.049*	-0.089***	0.087**	-0.084***	0.055*
INVREC	-0.035	0.106**		0.257***	0.050*	-0.021	0.137***	-0.130***	0.009	-0.071**	-0.106***	-0.086***	0.026	0.263***
LIQUIDITY	-0.006	0.049*	0.404***		0.219**	-0.088***	-0.034	-0.251***	-0.354***	0.052*	-0.055**	-0.222***	0.060**	-0.053*
ROA	-0.086***	-0.001	0.097***	0.311***		-0.387***	0.170***	-0.140***	-0.445***	0.105***	0.165***	-0.088***	-0.040	0.192***
LOSS	0.179***	-0.001	-0.038	-0.178***	-0.409***		-0.076***	0.011	0.416***	-0.002	-0.134***	0.163***	0.150***	-0.169***
GROWTH	-0.003	-0.009	0.134***	-0.008	0.269***	-0.119***		0.019	-0.018	0.004	0.001	0.012	-0.050*	-0.108***
NEWFIN	0.035	0.029	-0.136***	-0.275***	-0.178***	0.011	0.024		0.216***	0.005	-0.107***	0.213***	-0.001	-0.110***
DEBT	0.211***	-0.113***	-0.006	-0.480***	-0.466***	0.401***	-0.036	0.292***		0.055*	-0.141***	0.196***	0.132***	-0.003
INSTITUTION	0.047	0.074**	-0.123***	0.042	0.182***	-0.143***	0.032	0.073**	-0.069**		0.016	0.084***	0.003	0.019
BIGGEST	-0.102***	-0.089***	-0.090***	-0.054*	0.161***	-0.139***	0.017	-0.119***	-0.148***	0.022		-0.129***	-0.036	-0.024
BETA	0.036	0.068**	-0.096***	-0.237***	-0.145***	0.160***	0.005	0.232***	0.262***	0.110***	-0.163***		0.041	0.044
VOLATILITY	0.207***	-0.019	0.095***	0.039	-0.243***	0.427***	-0.059**	-0.044	0.341***	-0.206***	-0.189***	0.154***		0.005
ALTMANZ	-0.121***	0.023	0.345***	0.073	0.294***	-0.200***	-0.046	-0.164***	-0.046	0.026	0.019	-0.004	-0.066**	

변수정이는 <표 1> 참조

2. 회귀분석

가설1에서는 보고이익차이가 가지고 있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가 감사수수료에 반영되는가를 분석하였다. <표 3>에서는 우선 선행연구에서 회계이익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해진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 정보가 감사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본 이후, 본 연구가 보고자 하는 보고이익차이가 가지고 있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가 감사수수료에 반영되는가를 분석하였다.

보고이익차이를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측정치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모형1에서 보고이익차이는 감사수수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1을 지지하고 있다.¹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회계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발생액 또는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해 왔음을 고려할 때, <표 3>의 모형1의 결과는 보고이익차이가 적어도 감사수수료를 결정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발생액이나 재량적 발생액과는 차별적이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고이익차이가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로서 감사수수료 결정 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모형1의 결과는 회계이익의 질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업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보고이익차이와 (재량적) 발생액 변수 중 보고이익차이 변수만이 사용된 실증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양 변수 간의 상호 관계가 적절히 통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어떠한 변수가 회계이익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회계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인 보고이익차이와 (재량적) 발생액 변수를 동시에 포함하는 실증 분석을 수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의 모형2와 3에서는 보고이익차이와 (재량적) 발생액 변수를 동시에 포함하는 실증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¹⁵⁾ 실증 결과는 보고이익차이는 감사수수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수수료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이익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에 있어서 (재량적) 발생액 변수를 추가한 이후에도 보고이익차이가 (재량적) 발생액보다 더 명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에서는 감사업무 수행기간 정도(*FIRST, TENURE*),¹⁶⁾ 감사의견(*OPINION*), 전기오류수정손익(*RESTATE*), 손실발생(*LOSS*),

14) 보고이익차이 변수를 본 모형에서의 정의와는 달리 당해연도의 보고이익차이를 이용한 분석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본 분석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의 분석에서 보고이익차이 변수를 제외하고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을 각각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측정치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은 이후 연도의 감사수수료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으로 정의되는 전년도 회계이익의 질 또는 이익조정의 수준을 감사수수료의 결정시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15) 주요 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3이하의 값을 보였다.

최대주주지분율(*BIGGEST*) 및 도산예측 점수(*ALTMANZ*) 이외의 모든 변수에 있어 감사수수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보고이익차이가 감사수수료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모형1	모형2	모형3
절편	5.2834*** 16.69	5.2790*** 16.68	5.2740*** 16.67
$\ln(ABS\ BTD)_{t-1}$	0.0566*** 9.01	0.0568*** 9.04	0.0570*** 9.08
<i>TAC</i>		0.1018 0.97	
<i>DAC</i>			0.1915 1.61
<i>BIG4</i>	0.0809*** 4.17	0.0812*** 4.18	0.0823*** 4.24
$\ln(NON\ AUDIT\ FEE)$	0.0117*** 5.61	0.0102*** 5.05	0.0102*** 5.06
<i>FIRST</i>	0.0607*** 2.61	0.0566** 2.52	0.0579** 2.57
<i>TENURE</i>	0.0097*** 3.63	0.0099*** 3.69	0.0102*** 3.78
<i>OPINION</i>	0.0099 0.19	0.0151 0.29	0.0141 0.27
<i>RESTATE</i>	-0.2255 -0.79	-0.2226 -0.78	-0.2218 -0.78
$\ln(ASSET)$	0.1620*** 14.24	0.1621*** 14.25	0.1616*** 14.22
<i>SQSEGS</i>	0.0571** 2.16	0.0576** 2.17	0.0581** 2.20
<i>SQEMPS</i>	0.0072*** 13.88	0.0072*** 13.92	0.0073*** 13.98
<i>EXTRA</i>	0.0477** 2.05	0.0484** 2.08	0.0481** 2.07
<i>EXPORT</i>	0.0911*** 3.46	0.0904*** 3.44	0.0902*** 3.43
<i>INVREC</i>	-0.1616** -2.15	-0.1690** -2.24	-0.1676** -2.23

16) 초도감사(*FIRST*)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입장에서 보고이익차이를 정확히 고려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보수(risk premium)를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표 3〉 보고이익차이가 감사수수료에 미치는 영향 (계속)

변 수	모형1	모형2	모형3
<i>LIQUIDITY</i>	-0.0454*** -4.97	-0.0458*** -5.01	-0.0452*** -4.96
<i>ROA</i>	-0.3331*** -2.59	-0.3276** -2.54	-0.3117** -2.41
<i>LOSS</i>	-0.0258 -1.15	-0.0233 -1.03	-0.0280 -1.25
<i>GROWTH</i>	-0.0886** -2.10	-0.0900** -2.13	-0.0919** -2.18
<i>NEWFIN</i>	0.0954*** 4.44	0.0942*** 4.70	0.0933*** 4.65
<i>DEBT</i>	0.1932*** 3.40	0.1955*** 3.44	0.1924*** 3.39
<i>INSTITUTION</i>	0.0014* 1.78	0.0014* 1.78	0.0014* 1.72
<i>BIGGEST</i>	0.0002 0.35	0.0002 0.33	0.0001 0.30
<i>BETA</i>	0.0568* 1.95	0.0594** 2.03	0.0582** 2.00
<i>VOLATILITY</i>	-0.1024* -1.91	-0.1033* -1.93	-0.1017* -1.90
<i>ALTMANZ</i>	-0.0130 -0.52	-0.0126 -0.51	-0.0106 -0.43
산업더비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비	포함	포함	포함
$\overline{R^2}$	0.7985	0.8122	0.8125

변수정의는 <표 1> 참조

가설2에서는 외부감사인인 피감사기업의 보고이익차이에 반영된 회계이익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감사업무에 해당 정보를 고려할 때에, 외부감사인인 대형회계법인일 경우 해당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증한다. 가설도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회계법인인 중소회계법인인 경우에 비해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명확하므로, 보고이익차이에 있어서도 외부감사인인 대형회계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내포되어 있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업무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감사수수료도 추가적인 노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위의 사항, 즉 대형회계법인이 보고이익차이 정보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 보고이익차이($\ln(ABS\ BTD)$)와 대형회계법인($BIG4$) 간의 상호작용변수($\ln(ABS\ BTD)$)

$\times BIG4$)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표 4>는 외부감사인이 보고이익차이에 반영된 회계이익 정보를 인지하고 감사업무에 해당 정보를 고려할 때에, 대형회계법인($BIG4$)의 경우 해당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이다.

보고이익차이($\ln(ABS\ BTD)$)와 대형회계법인($BIG4$) 간의 상호작용변수($\ln(ABS\ BTD) \times BIG4$)는 감사수수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러한 결과는 외부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인 경우에 보고이익차이에 내포되어 있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결과적으로 감사수수료도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설2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변수로서 발생액을 추가한 경우 및 재량적 발생액을 추가한 경우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¹⁸⁾

가설1과 가설2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수수료를 결정할 때에 회계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보고이익차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에 외부감사인이 반응할 때에, 피감사기업의 또다른 회계이익과 관련된 정보인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즉, 외부감사인이 높은 (재량적) 발생액으로 인해 회계이익의 질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높은 보고이익차이가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미, (재량적) 발생액으로부터 낮은 회계이익 정보를 인지한 상태이므로 보고이익차이가 새롭게 가지고 오는 영향력은 작아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로 외부감사인이 높은 (재량적) 발생액으로 인해 회계이익의 질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높은 보고이익차이가 추가적으로 인식할 경우 회계이익의 질 저하에 대한 위험이 더욱 확실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감사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위의 사항, 즉 또 다른 회계이익과 관련된 정보인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이 보고이익차이 정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반응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보고이익차이($\ln(ABS\ BTD)$)와 발생액(TAC) 간의 상호작용변수($\ln(ABS\ BTD) \times TAC$)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표 5>는 외부감사인들이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에 대해 반응할 때에, 피감사기업의 또 다른 회계이익과 관련된 정보인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대한 실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7) 대형회계법인($BIG4$) 변수와 상호작용변수항의 다중공선성은 vif 를 확인한 결과 매우 큰 값을 보이지만, t 값이 모두 유의적인 값을 보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18) 보고이익차이와 함께 회계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변수인 (재량적)발생액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증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 감사품질 차이가 보고이익차이와 감사수수료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모형1	모형2
절편	6.0559*** 17.20	6.0515*** 17.20
$\ln(ABS\ BTD)_{t-1}$	0.02192** 2.3	0.02209** 2.32
$\ln(ABS\ BTD)_{t-1} \times BIG4$	0.0510*** 4.84	0.0511*** 4.85
<i>BIG4</i>	-1.0178*** -4.47	-1.0181*** -4.48
<i>TAC</i>	0.08484 0.82	
<i>DAC</i>		0.1838 1.56
$\ln(NON\ AUDIT\ FEE)$	0.0099*** 4.97	0.0099*** 4.97
<i>FIRST</i>	0.0538** 2.41	0.0551** 2.47
<i>TENURE</i>	0.0091*** 3.40	0.0093*** 3.49
<i>OPINION</i>	0.0209 0.40	0.0205 0.40
<i>RESTATE</i>	-0.2253 -0.79	-0.2241 -0.79
$\ln(ASSET)$	0.1607*** 14.27	0.1603*** 14.24
<i>SQSEGS</i>	0.0641** 2.44	0.0647** 2.47
<i>SQEMPS</i>	0.0069*** 13.25	0.0069*** 13.32
<i>EXTRA</i>	0.0455** 1.97	0.0452** 1.96
<i>EXPORT</i>	0.0852*** 3.27	0.0848*** 3.26

〈표 4〉 감사품질 차이가 보고이익차이와 감사수수료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속)

변 수	모형1	모형2
<i>INVREC</i>	-0.1756 ** -2.35	-0.1752 ** -2.36
<i>LIQUIDITY</i>	-0.0436 *** -4.81	-0.0432 *** -4.77
<i>ROA</i>	-0.2920 ** -2.29	-0.2760 ** -2.15
<i>LOSS</i>	-0.0238 -1.07	-0.0280 -1.26
<i>GROWTH</i>	-0.0935 ** -2.24	-0.0956 ** -2.29
<i>NEWFIN</i>	0.0975 *** 4.91	0.0965 *** 4.86
<i>DEBT</i>	0.1921 *** 3.41	0.1894 *** 3.37
<i>INSTITUTION</i>	0.0014 * 1.73	0.0013 * 1.67
<i>BIGGEST</i>	0.0003 0.53	0.0002 0.50
<i>BETA</i>	0.0650 ** 2.24	0.0642 ** 2.22
<i>VOLATILITY</i>	-0.1062 ** -2.00	-0.1047 ** -1.97
<i>ALTMANZ</i>	-0.0178 -0.73	-0.0158 -0.64
산업더비	포함	포함
연도더비	포함	포함
$\overline{R^2}$	0.8159	0.8162

변수정의는 <표1> 참조

<표 5> 발생액 차이가 보고이익차이와 감사수수료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모형1	모형2
절편	5.2540 *** 16.62	5.2724 *** 16.66
$\ln(ABS\ BTD)_{t-1}$	0.0587 *** 9.27	0.0567 *** 9.00
$\ln(ABS\ BTD)_{t-1} \times TAC$	-0.00272 ** -2.22	
$\ln(ABS\ BTD)_{t-1} \times DAC$		0.0007 0.61
<i>BIG4</i>	0.0832 ***	0.08182 *** 4.21
<i>TAC</i>	0.32784 **	
<i>DAC</i>		0.1150 0.66
$\ln(NON\ AUDIT\ FEE)$	0.0101 *** 4.99	0.0101 *** 4.99
<i>FIRST</i>	0.0535 ** 2.38	0.0587 *** 2.60
<i>TENURE</i>	0.0095 *** 3.53	0.0102 *** 3.79
<i>OPINION</i>	0.0202 0.39	0.0141 0.27
<i>RESTATE</i>	-0.2359 -0.83	-0.2171 -0.76
$\ln(ASSET)$	0.1619 *** 14.26	0.1618 *** 14.23
<i>SQSEGS</i>	0.0560 ** 2.12	0.0580 ** 2.19
<i>SQEMPS</i>	0.0072 *** 13.76	0.0073 *** 13.99
<i>EXTRA</i>	0.0472 ** 2.03	0.0489 ** 2.10
<i>EXPORT</i>	0.0898 *** 3.42	0.0893 *** 3.39

〈표 5〉 발생액 차이가 보고이익차이와 감사수수료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속)

변 수	모형1	모형2
<i>INVREC</i>	-0.1732 ** -2.30	-0.1662 ** -2.21
<i>LIQUIDITY</i>	-0.0452 *** -4.95	-0.0451 *** -4.94
<i>ROA</i>	-0.3314 ** -2.58	-0.3145 ** -2.43
<i>LOSS</i>	-0.0232 -1.03	-0.0285 -1.27
<i>GROWTH</i>	-0.0877 ** -2.08	-0.0918 ** -2.18
<i>NEWFIN</i>	0.0940 *** 4.69	0.0934 *** 4.66
<i>DEBT</i>	0.1978 *** 3.48	0.1920 *** 3.38
<i>INSTITUTION</i>	0.0014 * 1.77	0.0013 * 1.70
<i>BIGGEST</i>	0.0002 0.33	0.0001 0.29
<i>BETA</i>	0.0591 ** 2.02	0.0593 ** 2.03
<i>VOLATILITY</i>	-0.1039 * -1.94	-0.1018 * -1.90
<i>ALTMANZ</i>	-0.0098 -0.39	-0.0103 -0.42
산업더비	포함	포함
연도더비	포함	포함
$\overline{R^2}$	0.8129	0.8124

변수정의는 <표1> 참조

먼저, 보고이익차이와 발생액(*TAC*) 간의 관계를 보면, 보고이익차이($\ln(ABS\ BTD)$)와 발생액(*TAC*) 간의 상호작용변수($\ln(ABS\ BTD) \times TAC$)는 감사수수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감사인이 높은 발생액(*TAC*) 수준으로 인해 회계이익의 질이 낮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높은 보고이익차이 수준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높은 발생액 (TAC)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고이익차이 변수가 감사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보고이익차이와 재량적 발생액(DAC) 간의 관계를 보면, 보고이익차이($\ln(ABS\ BTD)$)와 재량적 발생액(DAC) 간의 상호작용변수($\ln(ABS\ BTD) \times DAC$)는 감사수수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감사인인 재량적 발생액(DAC) 수준으로부터 인지한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가 보고이익차이 수준에 대해 반응할 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회계이익의 질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재량적 발생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 결정에 있어서는 재량적 발생액 금액 자체로도, 또한 또다른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인 보고이익차이에 대한 반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재량적 발생액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민감도분석

본 연구의 실증결과와 관련 다음과 같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의 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보고이익의 절대값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세차감전 순이익과 사업보고서 상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간의 차이의 절대값이 사용됨으로써, 재무이익이 큰 경우와 세무이익이 큰 경우 간의 비교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재무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보고이익차이와 세무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보고이익차이 간에 차이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박종일, 전규안 2002; 전규안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검증하고자 재무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보고이익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와 세무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보고이익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동시에 모형에 반영하여 실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무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보고이익차이와 세무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보고이익차이 양자 공히 보고이익차이의 증가시에 감사인의 감사수수료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감사인이 보고이익차이에 담겨있는 회계이익의 질을 파악할 때에, 보고이익차이의 부호보다는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발생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익조정 및 회계이익의 질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있는 재량적발생액이 이익조정 및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량적발생액이 이익조정과는 별개로 기업의 성과(performance)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기업의 성과가 재량적발생액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재량적발생액 측정 시에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영업현금흐름(CFO)의 변동치를 추가적으로 통제한 이후에 재량

적발생액을 구해냈다(Kasznik, 1999). 본 연구에서도 재량적 발생액이 기업의 성과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따라, 재량적발생액의 측정시에 영업현금흐름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실증을 실시하였다. 실증 결과에서 보고이익차이변수는 여전히 감사수수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존에 유의하지 않았던 재량적발생액 변수도 감사수수료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보고이익차이와 관련된 실증 결과가 이익조정 및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재량적발생액 변수의 사용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재량적발생액의 측정 시에는 기업의 성과 등 이익조정과 상이한 성격을 가지는 기업 특성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감사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중요한 검증 변수인 보고이익차이 변수의 특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해외 양도성예탁증서(deposit receipts, DRs) 발행 여부와 외국인 주식 지분율(foreign ownership) 변수를 추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해외에 양도성예탁증서를 발행할 경우 해외의 엄격한 회계규정들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주식 지분율이 높을 경우, 해외 투자자들에 의한 높은 회계투명성 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실증 분석에서는 보고이익차이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회계정보의 질에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업보고서 상에 제시된 감사수수료는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수수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석 시에 연결감사 여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관계회사와의 상호거래 변수를 연결감사 여부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기존 연구 결과는 강건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함된 관계회사와의 상호거래 여부 변수는 감사수수료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그리고 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소비한 자원의 원가부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감사인의 총감사투입시간의 로그값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기존 연구 결과는 강건하였다. 추가적으로 포함된 총감사투입시간 변수는 감사수수료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총감사투입시간 변수가 상이한 직급 별로 단위감사투입시간이 감사보수에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을 정확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 민감도 분석에서 사용한 관계회사와의 상호거래 여부변수는 연결감사 유무 및 국내외 종속회사 수 등을 반영하기 위한 통제변수이다. 하지만 관계회사 간의 상호거래 여부가 연결감사 또는 종속회사 수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변수가 아닐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VI. 결 어

본 연구는 보고이익차이에 담겨있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보고이익차이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수수료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수수료의 결정 요인을 다루는 연구에서 보고이익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보고이익차이는 그 정의에 있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고이익차이와 감사수수료 간의 관계를 검증함에 있어서 회계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또다른 변수인 발생액(재량적 발생액)을 검증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서 발생액(재량적 발생액)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의 보고이익차이와 감사수수료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는 보고이익차이와 감사수수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수수료의 결정에 있어 보고이익차이에 담겨있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발생액 및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수수료의 결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서, 회계이익의 질을 이용하는 연구에 있어서 변수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음으로, 외부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BIG4)인 경우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의 질에 외부감사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를 검증한 결과, 외부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BIG4)인 경우 감사수수료가 차별적으로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점은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 정보의 유용성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회계이익의 질 및 감사품질에 더욱 민감한 대형 회계법인(BIG4)의 경우에 보고이익차이에 담긴 회계이익 정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부감사인이 발생액을 통해 회계이익의 질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고이익차이에 반응하는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외부감사인이 높은 발생액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는 높은 보고이익차이에 대한 반응 수준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발생액과 보고이익차이가 동시에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정보는 다른 정보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 결정요소로서 보고이익차이라는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검증한 연구이다. 둘째,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변수로서 보고이익차이와 (재량적) 발생액을 동시에 고려하였고, 그 결과 감사수수료의 결정에 있어 보고이익차이 변수가 보다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보고이익차이

변수와 발생액 변수 간에는 회계이익의 질 측정이라는 면에 있어서 상호간에 대체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셋째, 감사인의 규모 (*BIG4*)와 보고이익차이 간의 상호작용변수를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대형회계법인(*BIG4*)의 감사인이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고, 회계이익의 질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NON-BIG4* 감사인에 비해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고이익차이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의 재량적 발생액 등의 이익조정 측정치와 보고이익차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점에서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보고이익차이와 감사보수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회계사들이 감사보수 결정 시에 보고이익 차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실증결과가 누락변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보고이익차이는 일시적 차이만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즉, 이익조정과 관련성이 적어보이는 그 밖의 차이(영구적 차이)와 구별²⁰⁾하여 분석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에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보고이익차이 변수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회계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인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회계이익의 질이 감사수수료에 미치는 영향만을 측정한 것은 아닌 셈이다. 즉, 보고이익차이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요소가 복잡해질수록 감사업무가 증가되어 감사수수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종권 · 윤성수. 2006a.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이익, 현금흐름 및 발생액의 지속성과 자본시장의 반응.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127-162.
- 고종권 · 윤성수. 2006b. 재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적자회피 이익조정 분석.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 65-101.
- 노희천. 2009. 세무이익의 정보효과 : 주가관련성과 이익예측력을 통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33-69.
- 박종일 · 김경호. 2002. 세무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7권 제2호 : 81-115.
- 심태섭. 2004.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시 고려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17권 제1호 : 231-245.
- 윤순석. 2004. 이익관리수단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9권 제3호 : 33-59.
- 전규안 · 박종일. 2002.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1호 : 107-135.
- 주인기 · 최원욱 · 염지인. 2005. 이익조정 행위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 237-275.
- 최중서 · 문승엽. 2005. 이연법인세정보를 이용한 이익조정의 탐지. *회계학연구* 제30권 특별호 제1호 : 93-132.
- Becker, C., M. DeFond, J. Jiambalvo,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 1-24.
- Bedard, J., and K. Johnstone. 2004. Earnings manipulation risk, corporate governance risk, and auditors' planning and pric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79(2) : 277-304.
- Bell, T, W. Landsman, and D. Shackelford. 2001. Auditor's perceived business risk and audit fees : Analysis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1) : 35-43.
- Francis, J., J. Krishnan. 1999.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 : 135-165.
- Hanlon, M. 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80 (1) : 137-166.
- Hanlon, M. and G. Krishnan. 2005. Do Auditors Use the Information Reflected in Book-Tax Differences? *Working paper*.
- Kim, Kyung-Tae, Su-Keun Kwak, and Lee-Seok Hwang. 2007.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fees for non-audit services provided by incumbent auditors : Evidence from Korean Listed Firms. *Working paper*.
- Johnstone, K., and J. Bedard. 2001. Engagement planning, bid pricing, and client response in the market for initial attest engagements. *The Accounting Review* 76(2) : 199-220.
- Kasznik, R. 1999. On the association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 of Accounting Research* 37 : 57–81.
- Larker, D., and S. Richardson. 2004. Fees paid to audit firms, accrual choices,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2(3) : 625–658.
- Lev, B., and D. Nissim. 2004. Taxable Income, Future Earnings, and Equity Values. *The Accounting Review* 79, No. 4 : 1039–1074.
- Manzon, G. and George Plesko. 2002.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measures of income. *Tax Law Review* 55 : 175–214.
- Mills, L. F., and K. J. Newberry. 2001. The Influence of Tax and Nontax Cost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 Public and Private Firm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 (1) : 1–19.
- Myers, J., L. Myers, T. Omer. 2003. Exploring the Term of the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elation? *The Accounting Review* 78 : 779–799.
- Palepu, K., J. Healy, and V. Bernard. 2004. Business Analysis and Valuation. Using Financial Statement. Cincinnati, OH :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 Penman, S. 2007.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nd Security Valuation. 3rd ed. McGraw–Hill/Irwin, New York.
- Phillips, J., M. Pincus, and S. Rego. 2003. Earnings management : New evidence based on the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2) : 491–521.
- Phillips, J., M. Pincus, S. O. Rego, and H. Wan. 2004. Decomposing Changes in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o Isolate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6 (Supplement) : 43–66.
- Plesko, G. A. 2004.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properties of corporate earnings. *National Tax Journal* 57 (3) : 729–738.
- Simunic, D.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1) : 161–190.
- Weber, David P. 2005. Book–tax differences, analysts' forecast errors, and stock returns.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 Whisenant, S., S. Sankaraguruswamy, K. Raghunandan. 2003. Evidence on the joint determination of audit and non–audit fe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1(4) : 721–744.

An Empirical Analysis whether Book – Tax Difference Affects Audit Fees

Hee Chun Roh* · Kyung–Tae Kim**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result whether book–tax difference information is used in capital market in Korea. We investigate whether auditors use this information when auditing firms' financial statements. Specially earnings quality such as accruals are used in the empirical model with book–tax difference so additional information of book–tax difference which earnings quality information does not cover in prior literature.

The first result of this paper is that the relation between book–tax difference and audit fees is effectively positive. This means that audit fees increase in book–tax difference because auditors interpret high book–tax difference as low earnings quality so they make more effort and take more risk. Second, empirical result shows the more positive relation in big audit firms between book–tax difference and audit fees than in non–big audit firms. This means that big audit firms response the information of book–tax difference more sensitively than non–big audit firms. Third, the relation between book–tax difference and audit fees in group of higher accruals is less than in group of lower accruals. This is interpreted that additional information of book–tax difference decreases because of similar earnings quality information such as accrual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that investigates the information reflected in the difference between book and taxable income and whether market participants utilize this informa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information intermediary such as auditor in capital market uses the information of book–tax difference when auditor decides audit fees. Second, this paper presents the additional information of book–tax difference over accruals. Third, this paper analyzes that big audit firms response to book–tax difference more sensitively than non–big audit firms.

〈Key words〉 book–tax difference, audit fees, (discretionary) accrual, earnings quality, audit quality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si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